

서울시, '환상적인 라이트쇼' 펼친다

겨울 빛 축제 서울라이트 20일 개막식

1세대 비주얼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 참여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의 골곡진 외관 전면 220m에서 펼쳐지는 대형 라이트쇼 '서울라이트'(SEOULIGHT)가 20일 오후 7시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규모 캔버스로 변신하는 은빛 패널에 화려한 빛과 영상, 음악이 결합돼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환상적인 느낌을 연출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DDP에서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겨울 빛 축제 '서울라이트'(SEOULIGHT)를 오는 20일 오후 6시 DDP 실림터 1층 시민라운지에서 개최한다. 내년 1월 3일까지 15일 간 하루 4차례(매일 오후 7시~10시, 매시 정각) 16분 동안 라이트 쇼를 펼친다.

올해의 주제는 '서울 해몽'(SEOUL HAEMONG)이다. 빛 축제를 통해 서울과 DDP의 과거~현재~미래를 3개 챕터로 보여주며 '기억의 공간'을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를 위해 작가 레픽 아나돌(Refik Anadol)과 민세희 총감독은 DDP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AI로 꿈을 해석(해몽)하는 작업을 벌였다.

레픽 아나돌은 월트디즈니 콘서

트홀 외벽 미디어파사드 'Dream'을 연출한 터키출신 1세대 비주얼 아티스트다. 민세희 총감독은 AI 활용 미디어파사드 연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사양 프로젝터 28대, 스피커 62대가 설치됐다.

크리스마스 시즌(24일~25일)과 31일엔 특별한 날에 걸맞은 영상이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엔 DDP 건물 전체가 커다란 선물박스로 변신한다. 31일은 밤 11시 57분부터 2020년을 맞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새해를 맞는 화려한 불꽃놀이 영상, 서울시민의 새해 소망 메시지가 DDP 외벽을 가득 채운다.

어둠과 대비되는 라이트 쇼의 웅장함과 역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타, 밀리오레 등이 일대 9개 주요 건물이 축제에 동참했다. 라이트쇼 상영 중에 건물 외부 경관 등을 소동하고 일부 실내조명 밝기도 낮추기로 했다. 종구청도 DDP 일대 도로변 가로등을 일부 소동한다.

서울시와 중구청, 서울디자인재단, 동대문미래재단,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9개 동대문 상권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대문 상권과 DDP의 동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두타, 밀리오레, 헬로 aPM, 굿모닝시티, 롯데피트인, aPM플레이스, 누촌, 광희페션몰, 맥스터일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 배상국 수상



화순군은 배상국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이 동오농촌재단이 주관한 '제1회 동오농업과학기술인상' 기술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공익재단인 동오농촌재단은 성을 제정해 농업기술 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해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상은 연구 부문과 기술 부문, 두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배상국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장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작목 실증연구 및 보급 △딸기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생산비 절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배상국 미래농업팀장은 '한국농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농기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식물 뿌리는 어떻게 장애물을 피할까

국내 연구진이 식물 뿌리가 성장하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원리를 규명했다.

향후 식물이 어떻게 물리 자극을 인식해 반응하는지 밝힐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이효준 박사팀이 식물 뿌리가 장애물을 회피하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식물의 뿌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회피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연구팀은 식물 성장 호르몬 '옥신'이 뿌리 내에서 빠르게 재분비되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뿌리

가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옥신의 재분배가 옥신을 이동시켜주는 단백질(PIN 단백질)에 의해 이뤄지며, 이러한 과정이 뿌리가 장애물과 만난 뒤 1시간 이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식물이 터치 자극을 받았을 때 칼슘 신호가 활성화되는데 이 신호가 PIN 단백질에 의한 옥신 재분배를 유도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물학 분야의 세계적 저널인 '뉴 파이토로지스트(New Phytologist)'에 실렸다.

뉴스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같하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터넷진흥재단

사업자등록증명증